

백제유산의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의의

2015.7.9

노중국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통합관리단 위원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I.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
- II. 세계유산의 개념과 등재 기준
 - 1. 세계유산이란
 - 2.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규명
 - 2. 완전성과 진정성의 규명
 - 3. 보존 관리 계획 수립
 - 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 IV.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
 - 1. 지자체와 세 도시의 관점에서
 - 2. 학문적인 관점에서
 - 3. 앞으로의 과제

I.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

1. 우선등재추진대상으로 선정

1) 2010.1.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은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로 잠정목록 등재
전북도, 익산시는 익산역사유적지구로 잠정목록 등재

2) 2011. 1.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하여 우선등재추진대상으로 선정

2. 2011. 12.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MOU를 맺음.

3. 2012. 5. (재)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
진단) 발족. 그 산하에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사무국, 자문위
원회를 두어 추진업무를 전담하게 함. 이후 OUV 도출과 진정성, 완전성 규명, 보
존관리대책 마련 등에 전력을 집중

4. 이후의 과정

1) 2014. 1. 영문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2) 2014. 9. 이코모스의 현지실사를 받음

3) 2015. 5. 이코모스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권고하기로 함.

4) 2015. 7. 4.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5) 한국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하여 1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됨,.

유네스코 세계유산 상징 로고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1995년 :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1997년 : 창덕궁, 수원 화성



2000년 :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2007년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9년 : 조선왕릉



2010년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4년 : 남한산성



II. 세계유산의 개념과 등재 기준

1. 세계유산이란

1)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세계유산협약)에 의하여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발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문명과 자연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하여야 할 세계적 유산으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

◆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과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2.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1)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2) 문화유산의 6항목의 등재 기준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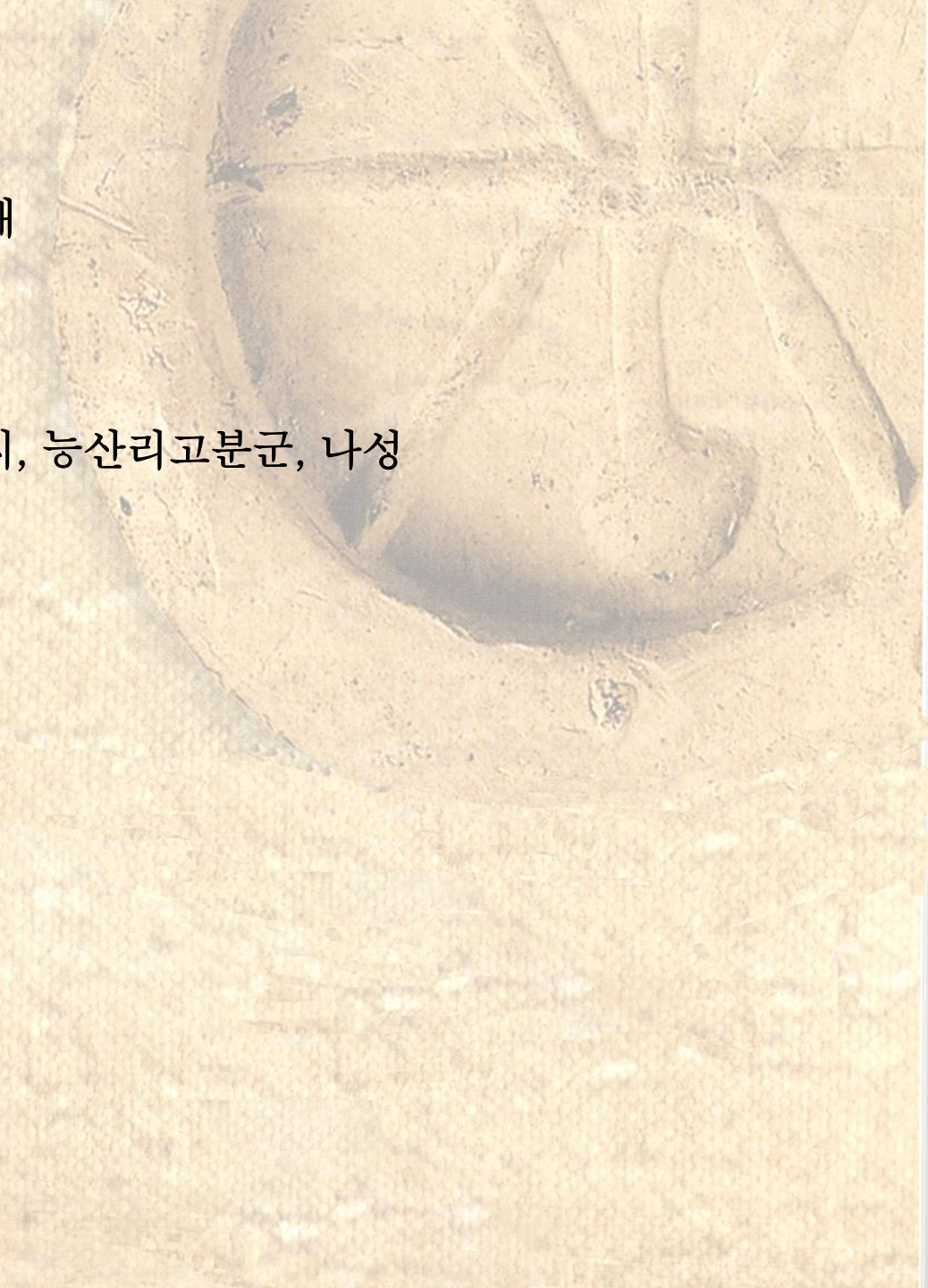
Ⅲ.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1. 여덟 개 유적

1) 공주:공산성, 송산리고분군

2) 부여: 관북리와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3) 익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공주 공산성s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 부소산성



부여 정린사지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 나성s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 지



2. 비교 연구 대상 세계유산

1) 경주역사지구(2000). 등재기준(ii)(iii).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왕궁, 산성, 고분, 사찰과 같은 특징을 갖는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백제유산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적 중 절반 이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보다 몇 세기 늦다.

2)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2004). 등재기준 (i)(ii)(iii)(iv)(v).

왕도에는 나성이 없고 정신 공간으로서의 사찰도 없어 백제 유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발전된 체계는 아니다.

3)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2004). 등재기준 (i)(ii)(iii)(iv).

유적은 모두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왕궁, 방어시설, 사찰, 고분으로 이루어진 백제 역사유적지구와는 다르다.

4) 일본의 고도 나라의 문화재(1998). 등재기준 (ii)(iii)(iv)(v).

백제보다 늦게 조성된 수도이다. 불교 사원은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왕도 건설은 당나라와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5)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등재기준 (ii)(i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도시계획은 개성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 유적이다.

한국의 경주역사유적지구익산



중국의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일본의 고도 나라의 문화재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준다.

기준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수도의 입지 선정, 불교 사찰, 고분, 건축물의 특징과 석탑들은 백제의 독특한 문화, 종교, 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완전성과 진정성: 신청유산의 단위 유적들은 전체로서 유산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청유산의 여덟 유적의 모든 요소들은 수리와 복원과 같은 인간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는데 자재와 기술들은 주로 전통을 따랐기에 고분과 사찰은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존 관리: 신청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호조례 아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보호된다. 완충구역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8m 이상 고도제한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신청유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통합관리보존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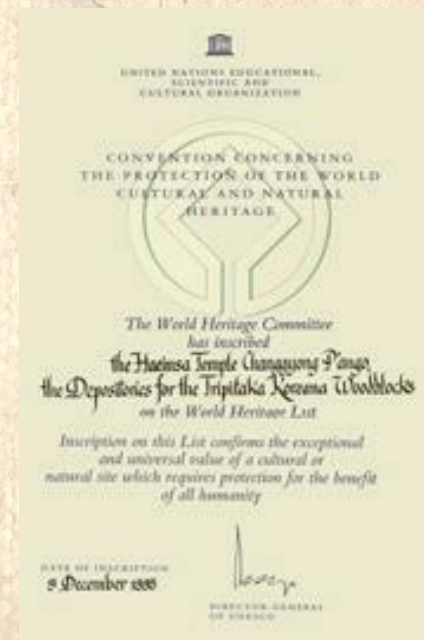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 상징 로고와 인증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IV.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의와 과제

1. 지자체와 세 도시의 관점에서

0.5개 지자체와 시도민과 시군민의 의지가 이루어낸 쾌거

0. 지역을 달리하고, 문화를 달리하는 5개 지자체가 백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임

0.여러 지자체가 연관되는 연속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표본

0.유산이 위치한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

0.유산이 위치한 도시 브랜드의 고양과 관광 활성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 창출

2. 학문적인 관점에서

0.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공주, 부여, 익산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0.공주,부여, 익산 세 지역의 유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됨

0. 백제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 삼국 문화 모두가 세계유산이 됨

0. 서울의 백제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3. 앞으로의 과제

0.통합관리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업무 영역이 빨리 갖추어져야 한다.

0. 세계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연차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0.5개 지자체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통합 축제, 세계유산 공동 답사, 세계유산 해설사 공동 교육, 세계유산 공동 학술대회, 문화재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 지자체 시민단체의 공동 활동

0.학회, 교육기관, 박물관, 연구소, 전시관 등 학술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한 연구의 심화가 필요

0.백제유산과 비교될 수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유산 지역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백제 유산의 적극적인 홍보